

[경남소식]농어촌공사 경남본부, 건설현장 집중점검 등

등록 2026.02.23 14:37:09



[창원=뉴스시스]노후저수지 수원공 수리시설 현장 점검. (사진=농어촌공사 경남 제공)
2026.02.23.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창원=뉴스시스] 김기진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동절기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남본부 관내 동절기 안전취약현장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.

이번 점검은 관내 수리시설개보수 및 농어촌 지역개발 현장 대상 안전취약 현장 23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.

경남지역본부는 2025년 재해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▲건설기계 사용 관리 ▲가설구조물 등 안전조치 ▲

현장 내 법적이행사항 준수 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'3대 중점 점검분야'를 선정하고, 9가지 세부 점검기준을 마련해 동절기 발생 가능 재해 요인을 집중관리했다.

◇박병준전기연구소, 경남적십자사 기빙클럽 82호

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23일 박병준전기연구소와 기빙클럽 82호 명패 전달식을 진행했다.



[창원=뉴시스]박병준전기연구소, 경남적십자사 기빙클럽 82호. (사진=경남적십자사 제공)

2026.02.23.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박병준전기연구소는 오랜 현장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7년 창원시 의창구에 설립한 전기장비 설계 및 제작 기업이다. 해당 기업은 2021년부터 3년간 기빙클럽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.

박 소장은 개인으로도 2019년부터 매월 정기후원에 동참하고 있으며, 2024년부터 현재까지 기빙클럽에 참여하며 위기가정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sky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